

거리예술로 풀어내는 지역의 이야기,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 공식참가작과 창작지원프로그램 통해 안산만의 이야기 풀어낸다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지난 5일 개막했다. 올해로 12회 째를 맞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4일간 13개국 50편의 공연을 통해 대규모 해외작품 외에, 안산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안산의 이야기를 듣는 '공식참가작'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공식참가작인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거리: 안산(아티스트: 모다트)'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많은 안산의 지역적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 생존을 위한 방랑의 길, 분열과 이주의 삶이 모인 안산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겪은 애환을 '거리무용'이라는 장르로 진중하게 풀어내간다.

공식참가작인 '안산순례길(아티스트: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부터 1년여 후인 2015년 5월 시작된 프로젝트다. 비극을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예술가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망각을 정당화하는 지금, <안산순례길2016>은 무기력, 무력한 개개인이 순례의 행렬을 이뤄 안산의 곳곳을 함께 걷는다. 안산역에서 시작하는 이 행렬은 사전 예약을 한 1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약 5시간가량 안산 곳곳을 걸으며 안산의 이야기를 기억하고자 한다.

안산과 이야기하는 '창작지원프로그램'

안산을 소재로 다룬 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안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작지원센터는 이 중 몇몇 작품을 매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통해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중 '무제의 열차(아티스트: 무제의 길)'는 안산 지역 곳곳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구성된 퍼포먼스 관찰극이다. 4호선 '수리산역'에서 '신길온천역'을 가로지르는 동안 열차 안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은 축제 전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기억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발견하였다. 영상과, 사운드, 라이브 퍼포먼스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인다.

창작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인 '도시소리동굴 프로젝트, 안산'은 조금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안산과 이야기한다. 도시의 울림을 낼 수 있는 동굴과 같은 공간들을 찾는 이 작품은 소리의 파동과 에너지가 만들어 내는 공명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가 내는 목소리의 울림은 기존에 알고 있던 공간을 관객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 작품은 '안산시청 별관 환경교통국'을 돌며 진행되는 공연을 위해 전문적으로 개설된 공간이 아니라 관공서의 건물에서 이뤄지는 공연이라 안산시민에게 익숙한 공간이 주는 낯설음을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스페인 피라타레가 거리예술축제'와 교류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아티스트: 까를라 로비라)'은 스페인의 작가 까를라 로비라(Carla Rovira)가 만드는 커뮤니티 연극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안산의 비극'에 대해 안산의 10대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시선을 담고, 지역과 이야기하고자 한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윤종연 예술감독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일상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거리예술만이 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밝히며,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지만 지역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담아 지역민과 더욱 깊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다 잡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예술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5일(목)을 시작으로 오는 8일(일)까지 안산문화광장 일원에서 만날 수 있다.

2016안산국제거리극축제 2016.5.5(목)~2016.5.8(일)

문의: 안산문화재단 축제사무국 홍지형 홍보PD(010-4546-9542/031-481-0536)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ID: artansan / PW: 1234 / [2016안산국제거리극축제] 풀더